



일하는 기쁨

정연아/정연아 이미지테크 연구소 소장

결 혼 전 3년 동안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했다. 나의 일에 무력감을 느낄 즈음 우연히 만난 그 남자는 어딘가 좀 달라 보였다. 내게 데이트 신청을 해왔던 다른 남성들과는 달리 그는 끈덕지게 구애를 해왔다.

그런 점이 남자답다고 여겼다. 보람도 못 느끼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일일랑 집어치우고 이 남자에게 '시집이나' 가자. 나의 행복을 이 남자에게 걸어보자.

나는 한 남자로부터 사랑 받는 아내가 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여 그야말로 카리스마(?)가 넘쳐 보이던 그와 결혼했다. 행복하고 싶어서 한 결혼이었다. 그러나 시댁식구와 함께 사는 결혼 생활은 내겐 결코 만만치 않았다. '나'는 없고 '나의 역할'만 남아 있었다.

주부 생활 3년이 되던 해에는 남편의 독선적인 성격과 전통적인 며느리상을 원하시는 시부모님과 의 갈등으로 신경성 위궤양까지 얻게 되었다. 그리고 2년이 더 지났다. 달라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던 어느날인가 화장대 거울 속에 비친 나의 얼굴을 무심코 응시하게 되었다. 결혼전의 밝은 표정은 한군데도 없고 내 얼굴은 온갖 짜증과 미움, 분노로 뒤덮여 있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얼굴이 나를 뻔히 쳐다보고 있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나를 찾고 싶었다.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문득 입가에 미소를 띄워 보았다. 표정이 밝아지면서 기분이 환해졌다. 일을 갖고 싶었다. 그래 다시 일을 시작해보는 거야. 나의 행복을 남편에게서 얻으려고 하지 말자. 털끝만큼도 바라지 말자. 오직 나 혼자 힘으로 전문직 여성으로 변신하는거야. 이 순간 나의 얼굴을 싹 바꾸

어 준 묘약인 미소(표정)를 연구하는 일에 승부를 걸어 보자. 이렇게 시작된 나의 일!

정말이지 '표정 연구가' 또는 '이미지컨설팅'로 불리는 나의 일은 곧 나의 인생에서 행복의 끈이 되어 주었다. 나의 일은 건조하기만 한 내 삶에 보슬비가 되어 천천히 나를 적셔준 것이다.

일에서 얻는 나의 행복 하나는 나의 변신에 있다. 일을 막 시작할 즈음에는 아줌마의 껌질이 한 겹씩(심통 난 얼굴, 구부정한 어깨, 아름답지 못한 옷맵시, 세련되지 못한 매너, 가볍게 내뱉는 말투...등)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낄 때마다 행복 하나씩을 주워 담았다.

행복 둘은 변신에서 얻는 자신감이다. 남편에 대한 미움도, 시부모님에 대한 섭섭함도 나의 자신감 앞에서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스스로에게 만족함으로써 주위로부터 받는 어떠한 긴장에도 보다 부드럽게 반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었다.

행복 셋은 이미지컨설팅이나 강연을 통한 행복이다. 나와서 만남을 통해 인생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천재적 두뇌를 가진 새내기 대학생이 지나치게 예민한 감성으로 외모 콤플렉스에 빠졌다가 거기에서 벗어나므로써 이제는 하버드대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행복감, 청주의 어느 분이 표정을 바꾼 후 오랫동안 앓던 우울증에서 벗어나 마침내 공인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였다며 환한 표정으로 내 앞에 나타났을 때에 느꼈던 행복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나는 일을 매우 즐기는 여자다. 일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이다.